

地域社会が要求하는看護員

政策過程 참여의 意義

— 본協會의 경우 —

□序 1□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무엇이나 다 자기의 존재를 주장하려고 한다. 이 주장은 다른 존재의 주장과 부딪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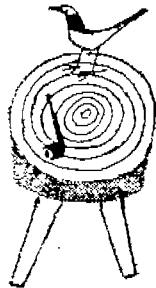
이 만남에서 제각기 존재의 공간을 독차지하려고 하면 하나가 죽든지 둘다 함께 죽든지 할 수 밖에 없다. 이 존재의 공간을 서로 주고 받으며 넓혀서 살 때 이것이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여 제각기 공간을 이용하여 함께 살 수 있게 될 때 이것이 정의라고 부른다. 존재의 힘이 사랑에 의하여 승화되고 정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평화롭게 자기의 존재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힘과 사랑과 정의는 똑같은 존재의 뿌리에서 하나트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힘의 참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존재의 기반>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힘이라는 것은 단순한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끝없는 길이(역사)와 무한한 넓이(전인류사회)와 한 없는 깊이(문화, 종교)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7)

□序 2□

거의 한달 전에 “보건 정책 과정 참여의 의의”라는 제목의 글을 쓰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본회와 또한 여러



본회 회장 田 山 草
 <연세간호대학장, 이학박사>

뜻있는 간호사업가와 학자들이 주장하고 갈망했으며 너무나 오랫동안 그 필요성을 뼈속 깊이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한 우리들의 주장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 어디서 부터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 논설해야 우리들의 너무나 타당하고도 자명했던 주장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다. 원고를 청탁받아 이렇게 오대 끌어 보기도 처음이고 이렇게 내가 글을 못쓴다고 생각해 보기도 처음이다.

원고를 부탁한 당사자는 회장의 게으름을 마음 속으로 탓했으리라고 생각은 했으나 나에게서 이런 고민이 있었다.

이 글을 쓰려고 붓을 드니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답답하고 억울했던 사연들이 폭발하여 이성을 잃고 녀우리라도 나올 것만 같고 또한 냉정을 기해 이성적으로 쓰려니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주장하던 일하기에 맥빠진 역사를 더듬는 것 같고 하여 쓰는 것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한장 한장 써 두었다가 급해서 모아보니 조각보와 같은 하잘 것 없는 글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인 정책참여의 깊은 의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이 글의 서문에 제시해 놓았다. 독자 여러분은 필자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이 글을 읽어 주기 바란다.

이 글은 간호원의 정책과정 참여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간호원의 정책과정 참여 문제의 해결은 그 본질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시대부터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약 60여년 앞선 1890년대 부터였다고 생각한다.

지면 관계상 역사적 제시는 할 수 없고 근대에 저자가 참석했던 두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서 중 간호원의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국제적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보고 그 의의를 생각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1973년 Mexico에서 개최되었던 국제간호연맹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된 ICN의 간호원의 역할의 확장에 관한 성명서를 보면 새로운 건강사업에 있어서 간호원은 보건 정책과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건강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보건 정책의 목적과 과학 및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세계 인구에 대한 건강사업(Health Service)은 확장되었으며 전문직 간호원과 다른 보건 전문 직업인들은 그들의 역할의 확장의 필요성이 당연하게 되었다.

보건요구의 정책과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간호원과 의사는 그들 각자의 전문직업인의 특성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동하며 참여한다.

새로운 분야의 보건요원이 생기고 사회의 여러가지 함축된 변천으로 인해 간호업무는 다양성을 지니게 된다.

이같은 상황이 간호원에게 전통적인 행위와 또한 새로운 역할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들의 업무와 경제의 핵심은 분명히 간호학에 직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교육계획은 간호업무 실습 이행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확장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 했으며※(5)

또한 지난 1975년 8월 Singapore Shanglila hotel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의 Council of national representatives(국제 간호연맹 대표자회의)에서는 그 중요 안전 중의 하나가 간호원의 정책 참여, 행정 참여의 시급성과 중요성 및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채택 발표한 바 있다.

즉 :

“인간 환경을 지키는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국제간호연맹의 정책 성명서”

1. 건강한 인간의 환경에 병적 요소 및 이에 저해되는 요소를 찾는다.
2. 일상 활동에서 잠재적으로 해로운 화학 불

질에 관련된 자료나 방사능 문제, 새로운 건강의 위협 요소 및 그의 예방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개인, 가족, 또는 지역사회 집단에게 지식을 주고 또 이 지식을 적용한다.

3. 개인, 가족 또는 지역사회 집단에게 환경 자원의 보존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 인한 건강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의 예방법을 가르치고 알려준다.

4. 인간의 주거에 존재하는 건강 위협요소와 건강 보건사업 분야의 새로운 일을 보건 당국이 계획하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며 함께 일 한다.

5. 환경적 건강 문제를 위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6. 불리한 환경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경고해 주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와 생존 및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발전하기 위한 연구에 참가한다. ※(6)

이상 4, 5, 6항에서 보면 간호원의 1) 정책 및 기획 수립과정 참여와 2) 지역사회 건강사업에 직접적 참여 및 3)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사업에 참여할 것을 시급하고도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행정참여의 의의와 목적이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시대적 간호요구에 부응하여 취급되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간호원의 정책과정 참여 문제와 이 운동의 주장은 계속되고 있을 뿐 문제의 와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주장은 주로 간호원의 지위 향상 매우 개선을 위한 협의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간호원의 정책과정 참여라는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위치를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보겠다.

간호원의 정책 참여를 주장하는 목적과 의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인간완성의 복지 사회 건설에 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힘의 문화인 기존 문화는 결국 인류에게 소외와 갈등, 분쟁, 질식을 안겨다 주었다.

경제적 고도 성장의 변화가 가속화 함에 따라 경제사회 여러 부문간에 성장과 변화상에 조화가 결여되고 급변하는데 대한 사회적 적응의 문제가 수반될 뿐 아니라 인간의 개발의지를 집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고도 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1인당 GNP의 증가를 나타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와 같은 정도의 인간복지의 증진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선·후진국간의 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를 더하게 하므로써 인류의 여망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인류의 복지후생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르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반성은 우리나라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인 것으로서 UN에서는 환경의 해, 인구의 해, 여성의 해를 선정하므로써 새문화를 향해 그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성장의 60년대에서 성장과 균형의 70년대”로 그 역점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은 중요시 해야 할 소치라 하겠다. ※(7)

새 문화, 새 사회는 과거의 힘의 문화 기존사회를 지양하고 인간의 공존과 협동을 통한 평화 복지 사회, 건강 사업 완성의 사회를 지향함에 있다.

새 사회의 건강 사업 완성은 건강 요원의 어떠한 부분의 직종이라도 team member로서의 조건의 부여가 결여 되어 있는 한 그 달성은 불가능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 있어서의 간호원은 회생과 인고의 힘으로 지역사회 주민에 봉사하였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숙한 사상(철학)의 힘, 협동적 힘, 참여의 힘으로 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대적 역할이 있다.

따라서 간호원의 힘의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간호원의 지위와 역할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結 果 案 □

진정한 의미의 선하고 슬기로운 우리의 역량의 발휘가 요구되며 어느 한 건강사업의 화업에도 간호원의 참여가 요구되지 않는 곳은 없다. 더우기 과거의 의료사회에 있어서 간호원(여성)에게는 일반적으로 억압과 폐쇄사회였기 때문에 간호원의 인간조건 개발과 간호원의 능력 개발이 시급하다.

Rosner 는 기브즈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는 높이 평가되는 중요한 직책에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그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3)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간호원은 보조자가 아니라 능동자·협동자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며 인습적 고정관념을 파헤치고 구체적인 활동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회의 간호원에 대한 의식개조를 위해서 계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원의 의식화를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 현재 교과과정에서 간호원의 인간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제거되어야 하며 그 기초 작업으로 교과과정 검토가 필요하며 학교를 이미 떠난 간호원을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이 그 재교육장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발적이 아닌 조직적인 재교육 훈련이 요구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권리를 기초로 한 우리나라의 민주적 건강사업 체제를 토착화 하여야 할 과제가 있으며 또한 우리들의 지적, 기술적 및 인간 이해의 능력을 증진시켜 건강간호사업의 체제를 견고히 하여 타전문직과 병존하며 능력자로서 동참하여 일해야 할 과제가 있다.

□ 참고문헌 □

1. Kohnke, Mary F. & others, *Independent Nurse Practitioner*, Trainex Press 1974. pp. 32-48
2. 김보임 "정부장기종합보건계획과 우리의 과제", 대한간호 Vol. 14, No: 6, 1975 pp. 6-11
3. Menahem Rosner, "Women in the Kibbutzi Changing Status and Concepts," *Readings on the Psychology of Women* ed. by J.M. Bardwick, New York: Harper & Row. 1972
4. 연세대학교 지역사회 간호학 교실 권찬 "지역사회 간호학 현장 학습 지침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976, pp. 26-30
5. 전산초 "임상간호학의 이론과 전략",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75, pp. 25-26, 34-36.
6. 전산초 "국제간호연맹 : 국가대표자 회의에 다녀와서" 대한간호 Vol. 14, No. 5, 1976, pp. 34-41
7. 주학중 "사회개발로의 전환점에 즈음한 간호의 새로운 전망" 대한간호, Vol. 15, No. 1, 1976. pp. 18-22
8. 현영학 "힘의 개념" 한국 여성의 어제와 내일, 김활란 박사 5주기 기념 사업 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6, pp. 145-146.

